“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새해를 맞아 각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공동체 직원 시무식이 3일(화) 11시에 있습니다.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 컨퍼런스가 4일(수)-6일(금)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있습니다. 공동체학교 교사 전체가 참석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태일 목사 · 이월영 사모 가정 (감사)
정재훈 목사 · 장영미 전도사 가정 (감사)
권재만 목사 · 차태옥 사모 가정 (감사)
정다운 전도사 · 이동환 선생 가정 (감사)
최기찬 전도사 · 노미현 사모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영화 권사 (신년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 호
2023년 1월 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처음 사랑방공동체에 왔던 날은 이번 겨울처럼 하얗게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눈 속에 빨간 지붕만 선명하게 보이던 사랑방의 풍경은 동화 속 나라와 같은 신비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새도 없이 점심때가 되었다며 고모리에 있던 2층짜리 식당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고기를 사주셨었죠. 20년 전 기억이지만 아직도 불고기 속 당면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를 대접받았습니다. 차의 향과 맛이 어떤지 일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 자리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참여했던 어리숙한 젊은 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마도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오랜 시간 차를 마신 이 경험이 공동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정말 말 그대로 모이면 먹는 사람들 속에서 지내게 되었고, 날카롭던 얼굴은 퉁실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은 어느 자리든 일단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의를 해도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일단 먹으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방모임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우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방모임을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공동식사로 마무리가 되고, 식사 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티타임까지 풀코스를 밟습니다.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나눠 주기도 하고, 함께 먹자고 청하기도 합니다. 사랑방 식구들의 생활에서 먹는 것을 뺀다면 아마 많은 부분을 생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방은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먹는 자리에서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긴장을 풀어주고 호감과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라면의 파 쏭쏭'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라면집 주인 할아버지를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내용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남남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끓여준 라면을 함께 먹으면서 화해하고 서로를 감싸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남이 아닌 이웃이, 동료가,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 사랑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의 장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함께 음식을 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했던 초대교회처럼 한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모두 사랑방의 한 식구임을 새기고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넘어 깊은 교제와 나눔으로 서로 참사랑 하는 한 식구가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93, 460, 335, 410 (212)
기도 : 윤호중 집사
성경 : 사무엘기하 8장
제목 :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비결

1. 내용: 다윗 왕국이 바르게 서다. (What)
   1) 다윗왕이 전리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1~12>
   2) 주님께서 다윗왕에게 승리를 주셨다. <13~14>
   3)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15~18>

2. 의미: 다윗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잘 다스렸다. (Why)
   1) 따로 구별한 금, 은을 주님께 바쳤다. <11, 12>
   2) 다윗이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셨다. <6, 14>
   3) 다윗은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15>

3. 적용: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자. (How)
   1)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자.
   2)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자.
   3)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자.

회복을 믿으며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가장 오래 남고 행복한 기억은 미국에서의 짧았던 유학 생활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혼자만의 생활이었기에 두려움과 긴장감이 가득했었지만,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주시고 직접 만나게 해주신 덕분에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그 짧았던 생활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고 행복했던 미국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국방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다른 분들처럼 제약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은 비교적 아니었지만, 그 시간은 제 자신을 많이 바꿔놓았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아닌 운동이었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럽게 훈련을 하루 3시간 이상씩 매진하다 보면 잡다한 생각들도 사라졌고, 몸이 변화되고 신체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말씀을 토대로 살지 않고 운동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살아온 이유 때문인지, 현재 취직이 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요즘 전 공허하고 많이 지쳐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느껴지며, 주위를 둘러봐도 마음 나눌 친구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먼저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먼저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는 데도, 살아가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무거운 쇳덩이보다 성경과 말씀을 먼저 잡고, 주실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짐과 약속은 성격상 꼭 지켜야 하기에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분명 다시 회복시켜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간에 말이죠.

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티시고 잘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젊은이사랑방 김범준 청년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민수기 6 : 24-26	인도자
*예배의 찬송	9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50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창 18:1-15, 벧전 4:7-10	설교자
성가대 찬양	552	사랑방
설	"교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38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주님의 사랑이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한호남 정승희/ 봉헌위원 : 최연우/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날을 주일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다. 더운 대낮에 장막 어귀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은 웬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손님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였고, 아들을 낳게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상속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접,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성경에서는 남을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마7:12> 율법의 본뜻은 '사랑'이므로 대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접'에 관한 교훈의 내용은, 사랑하라-대접하라-원수를 사랑하라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롬12:9-21> 대접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은 사람들의 만남을 제한하여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켰으며, 개인주의와 편의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개인의 신앙회복과 교회생활의 회복에 이어 공동체적인 삶의 회복에 힘쓰는 해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밥상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진정행 권사

멋쟁이 4학년 해외문화체험학습 후기 <이탈리아 - 로마>

한 달 여행의 종착지, 로마에서 약 10일간 머물렀다. 로마에서 오전에는 특별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탐방을 다녔다. 덕분에 로마와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배울 수 있었다.

특별히 이탈리아에서는 정태일 목사님의 제자인 박용주 집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한식당을 예약해 주셔서 감동과 기쁨이 있었다. 한식당 가는 날을 세어가며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또 집사님께서 숙소도 구해주셨는데,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었다. 그 시대의 건축문화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 역사적인 곳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듯 로마는 찬란했고 찬란하다. 과거 유럽을 제패했을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때문에 경제, 문화, 정치,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 로마의 거리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유적이고, 기본 천 년 된 건축물이 다수이다. 한 나라의 도시이지만 세계사의 한 폭을 깊이 있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방문한 도시 중 가장 넓고, 깊게 여행했지만 보지 못한 것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나중에 세계사를 더 공부하고 다시 간다면 또 새로운 시선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외문화체험학습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여행이었다. 17살에 해외에서 친구들과 잊지 못할, 즐겁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했다. 이동환 선생님과 박용주 집사님, 한인교회 목사님과 교인분들, 봉사로 수업해주신 강사선생님들, 기도로 함께해 준 멋쟁이들과 공동체 많은 분들,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고 보내주신 학교와 선생님들, 가족들, 함께해 준 4학년 친구들과 인도해 주신 장성아 선생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진시우 멋쟁이

5학년 해외공동체 탐방 소감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추었던 길고도 긴 시간을 지나서, 5학년 학생 5명과 함께, 3년 만에 유럽으로 해외 공동체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공동체 학교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을 탐방하여 공동체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개혁신학의 중심지인 종교 개혁지를 방문해 우리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며, 우리와는 다른 해외문화를 체험하며, 특별히 우리의 전통악기를 해외에서 연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33일간 독일,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6개국 18개 도시를 자동차와 기차로 여행하면서 7번의 풍물 버스킹, 부르더호프와 떼제 공동체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과 의미 있는 만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가족처럼 가깝게 생활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서로를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하는 놀라운 기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정재훈 선생님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럽공동체 탐방을 하면서 유럽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도 보고 많은 세계문화유산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여행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졌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여행이기도 했다. 일정 속에서 날씨가 거의 다 좋아서 더욱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다. 여행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과 하나님께 감사했던 여행이었다. - 박인혁 멋쟁이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경험과 교훈, 추억을 얻을 수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사전 준비와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주체적으로 준비했기에 돌발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었고 더 이상의 해외여행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설레는 첫 가을 유럽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멋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었다. 인연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몸소 경험할 수 있던 여행이었다. 즐거운 여행을 완성해준 친구들과 선생님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 이나영 멋쟁이

일기

멋쟁이학교 교사로 학기말 면담 자리에 앉아있으면, 뿌듯하고 감동하다가도 괴롭다. 그 자격에 대한 나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기에. 목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멋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시는 애정 담긴 피드백의 부스러기들을 열심히 주워 담아 나에게 먹인다. 나의 중심을 돌아보고 돌보며 신앙과 삶, 사랑과 정의,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2022년을 시작하며, 스물여섯은 과정의 나이로 정했다. 결과에 얽매지 않는 과정의 나이. 결과 중심적인 내가 싫진 않지만, 둘러보니 한쪽에 치우친 건 멋도 맛도 없더라.

1월에는 겨울 방학을 지내며 사랑하는 나의 삶을 꾸리기 위한 정비 시간을 가졌다. 2월에는 사랑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 3월에는 바다와 산에서 멋쟁이들과 손을 맞잡고 흔들리지 않을 사랑을 눈물로 다짐했다. 4월에는 화천부터 포천까지의 길에서 생명과 죽음을 마주하며 나에게 허락된 삶에 더 감사하게 되었다. 5월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사랑했다. 6월에는 2년째 함께하는 나의 최연소 친구들에게 책임과 신뢰라는 새로운 사랑을 배웠다. 7월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다시 새기며 보이지 않지만 명백한, 한없는 당신의 사랑에 감격했다. 8월에는 누군가에겐 여행, 누군가에겐 도전이 될 한 달 여정을 준비하며 설렘과 두려움으로 성장했다. 9월에는 온전하지 않은 나를 온전케 하는 사랑을 깨달았다. 10월에는 일상에 적응하며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인정했다. 11월에는 열매 맺는 사랑을 축복했다. 12월에는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뜨거운 것은 조금 식혀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적당한 온도로 지키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나누었다.

2023년이 시작됐다. 계획에 없던 두 번째 스물다섯, 스물여섯. 빠르고 큰 성공만을 비추는 세상에서 둘러보며 걷는 지혜와 인내 뒤 불확실한 성취를 기꺼이 기꺼워하길 바라며.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청년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권재만 목사
찬 송 : 28장 270장
성 경 : 사무엘하 7장 18-29절
말 씀 :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적 경제위기>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모든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2) 동남아 몇몇 국가를 비롯 상당 국가들이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소외되고 어려움 겪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꿈이 있는 교회>
   1)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2)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잇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3) 공동체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한해를 보내며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2) 공동체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2022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으로 회복을 외치면서 시작한 2022년은 공동 식사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생일 축하 모임도 하게 되는 등 예년의 공동생활 모습을 많이 회복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2023년을 생각하면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에 참 기쁨을 경험하는 2023년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